

알제리 정부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철강 산업 육성사업을 위한 협의 및 사전 조사

-홍진기 연구위원(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) 외

1. 출장개요

출장목적	○ 알제리 정부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철강산업 육성사업을 위한 협의 및 사전 조사			
활동내용	○ 알제리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안나바와 오란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를 방문조사하고 입지적합지역을 선정 ○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의 입지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알제리 정부 자문사업을 수행 ○ 이외에도 2단계 사업 추진방향 및 알제리 철강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협의를 추진			
출장기간	2008. 2. 14(목) ~ 2. 22(금) (8박9일) ※ 알제리는 이슬람력을 사용하므로 목·금이 휴일			
출장국가	알제리			
출장자	소속	성명	직위	담당업무
	산업연구원	김도훈	선임연구위원	출장업무 총괄
		김주한	선임연구위원	알제리 철강산업 육성방안 협의
		홍진기	연구위원	산업클러스터 조성 대상지 방문조사 및 구축방안 협의
		김영수	연구위원	“
	한국토지공사 산업단지처	정호기	차장	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입지적합성 검토
	무영이앤씨	유천용	대표	토지이용계획구상

2. 세부 출장일정

1일차	18:00 파리도착 → 20:00 호텔도착 → 22:00 석식 후 취침
2일차	파리 → 알제 이동(호텔 체크인 및 임차차량 등 점검)
3일차	09:00 산업투자부 협의(부클리아 교수, 위셋 과장, 토우아미 보좌관) 10:00 확대 회의(국토개발부, 에너지부 합동회의 참석) 13:00 중식(도시락) 산업투자부 테마르 장관 방문 14:00 회의 계속 17:00 회의 종료 18:00 호텔 도착 19:00 대사관 만찬 참석 22:30 호텔 도착
4일차	05:30 호텔 출발 09:00 알제리 동부지역인 안나바 도착 10:00 ~ 13:30 정부정책에 대한 지자체 브리핑 참석(벤가유 지사주관) 13:30 ~ 15:00 중식 15:00 ~ 18:00 산업단지 후보지 답사(4개소) 18:00 ~ 19:00 미탈철강공장 방문 20:00 ~ 22:00 알제 이동 23:00 호텔 도착
5일차	05:30 호텔 출발 09:20 알제리 서부지역인 오란 도착 10:00 ~ 17:00 산업단지 및 후보지 답사(2개소)
6일차	08:00 오란 시청 출발 09:30 모스타가넴 도착 10:00 ~ 13:00 모스타가넴 지자체 브리핑 참석 14:00 ~ 16:00 모스타가넴항 방문 16:00 ~ 17:00 오란 출발 18:00 알제 호텔 체크인
7일차	09:00 산업투자부 도착 10:00 ~ 14:00 조사결과 토론 및 향후 추진일정 논의 15:00 ~ 짐 정리, 호텔 출발
8일차	03:30 알제공항 출발 07:30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착
9일차	인천공항 도착

3. 업무협의 및 공청회 참석

□ 업무협의

- 알제리의 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담당 국장 및 부클리아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참석한 관련 공무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짐.
- 주요 발표내용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산업정책의 시행을 위한 개념 정립과 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것이었음.
- 토론 과정에서 한국의 클러스터 정책 시행과 관련한 사례 및 법·제도 등에 관한 소개가 있었음.
- 클러스터정책에 관한 발표 및 토론과는 별개로 알제리 철강산업 육성방향에 대한 별도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철강 담당자인 김주한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음.
- 알제리 측에서는 포스코 등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들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채굴권의 확보 등과 같은 별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철강분야에서의 알제리 투자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.

□ 지역 순회 공청회 참석

-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 정책 설명회와 별개로 안나바와 모스타가넴에서도 지역 공무원 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음.
- 공청회 과정에서 한국의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이후 만찬 등을 통해 참석자들과 클러스터 정책 전반에 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음.



<알제 회의 2/16>



<산업투자부장관 방문>



<안나바 회의전경 2/17>



<안나바 회의>



<오란 회의 2/18>



<모스타가넴 회의 2/19>

<최종회의 2/20>

<대사님 면담>

4. 현장조사

(1) 안나바(튀니지와 직선거리 5km 지점, 인구 60만명)



구분	위치	면적(천㎡)	형태	공장간섭	평가
대상지1	도심으로부터 7km	500	평지	보통	
대상지2	도심으로부터 30km	1,000	구릉지	거의없음	△
대상지3	도심으로부터 40km	300	평지	많음	
대상지4	엘하자 방향	1.000	평지	미탈공장	○

□ 대상지1

- 안나바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공장폐수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고 있어 추가적인 개발이 불가
- 입주기업이 배출하고 있는 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안나바지역 주변으로 그린벨트 등과 같은 완충지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

□ 대상지2

- 산악의 구릉지 최상류 지역으로 일부 공장이 설립되어 있으나 부지만 차지하고 있는 양상
-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 주거지역에 대한 대기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토질은 마사토, 토심은 2~3m로 양호
- 간선시설공급과 진입로 개설조건 불량으로 간선도로변으로 위치변경이 걱정할 것으로 판단

- 위치 변경시 간선도로가 직접 연결되어 진입 여건이 양호하고 도로 건너 하천의 풍부한 공업용수, 하수처리시설 설치 용이로 산업단지로서의 입지요건은 만족

□ 대상지3

- E-media, Fezara 등 공장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고 확장 가능한 부지가 20~30헥타르가 있다고 하나 양호한 수림지대로 환경성 측면에서 확장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

□ 대상지4

- 과거 (주)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산업단지 예정지로 답사하였던 지역으로 이집트 철강회사인 미탈공장이 인근에 입주하고 있어 입지조건이 양호
- 기반시설 설치 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탈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



<안나바 후보지: 도로변 우측이 미탈공장>

(2) 오란

□ 대상지1(하위 아메르)

- 1981년에 조성 완료된 기존 공장지역으로 180헥타르의 부지에 장치산업 위주의 공장들이 불필요하게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매우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연출

□ 대상지2(오란에서 30km 동측 지점에 위치, 면적: 1,140천㎡)

- 오란에서 산업용지로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 넓은 평지와 간선도로, 수로 인접, 전기공급 원활 등 기반시설 구비에 용이
- 사업지구 우측변에 취락지가 분포하고 있고 오란 등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산업단지로서는 최적지로 판단
- 또한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최적의 지형조건을 갖고 있고 면적 확장에 제약이 없는 지역
 - 인근 화학단지와 연계하여 물류단지를 포함한 복합단지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


<오란 후보지>



<도로반대편: 멀리 화학공장이 보임>

4. 종합의견

- 알제리 정부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알제리측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대상지역을 공동으로 방문 조사한 이번 출장은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음.
- 수도인 알제로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집중을 막기 위해 제2, 제4의 도시인 오란과 안나바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를 물색하였음.
- 현장 조사 결과 알제리에서 산업단지라고 보여준 몇 군데의 공장지대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산업단지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었고 제대로 된 산업단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.

- 당초 알제리에서는 이러한 공장지대를 네트워크 방식으로 엮어서 광역 클러스터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.
- 이번 방문 조사를 통해 우리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대로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이 불가피함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고, 새로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.
- 한국토지공사 및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의 전문가 등과 함께 대상지의 입지조건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알제리 정부와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음.
-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에 대해서는 이후 입지적합업종의 선정 및 주요 도입기능 및 시설의 도출 과정을 거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접근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였음.
- 현재 알제리의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토지이용계획은 지나치게 생산기능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.
-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3월 이후 알제리 방문을 통해 계속하기로 합의하였음.